

사과문

안녕하세요, '4인4색'의 일반 독해 저자 김민규입니다.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낸 책에서 이러한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되어, 수험생 여러분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. 기대하면서 책을 읽으신 독자 여러분이 책에서 오류를 발견했을 때의 그 실망감은, 저 또한 한 때의 수험생의 입장에서 깊이 통감하며,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.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집필하였으나, 제 자신에 대한 과신이 이러한 결과를 빚었다고 생각합니다. 수험생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제 순수한 바람과 달리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게 된 것에 자괴감마저 느낍니다. 단 하나의 간곡한 부탁은, 제 글을 다른 저자분들의 글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지만 않으셨으면 합니다. 일반 독해에 대한 따끔한 지적에 감사드리며, 반성의 계기로 삼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